



해외

WORLD

달라이 라마 '독일미디어상' 수상

이탈리아 로마·베네치아 명예시민증도 받아

달라이 라마가 '독일미디어상'을 받고 이탈리아 명예시민증을 받는 등 유럽 국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본 교도 통신은 "달라이 라마가 '독일미디어상'을 받았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독일미디어상'은 국제 여론과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끼쳐온 인사에 수여하는 것으로 달라이 라마가 50년에 걸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현대사에 기억될 인물로 활동한 점을 높이 사 수여했다.

독일미디어상은 1992년 창설됐으며 매년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벨스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2월 8일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로마 시장인 지아니 알레마노는 "인류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불의를 거부한 도

덕적인 상징"이라며 달라이 라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티베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그의 투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명예시민증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일은 내가 비폭력 투쟁을 벌여나가는 데 많은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달라이 라마는 10일에도 베네치아를 방문해 베네치아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이너는 기자

불교연구센터 건립 학술대회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가 2월 16~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타임즈(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는 최근 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한 기념으로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국제불교컨퍼런스에는 이란과 미국, 독일 등 각 나라에서 온 150여 학자, 교수, 승려 및 신학자들이 참석해 '아시아 불교: 불교적 지식과 문화교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동남아시아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는 불교문화에 대해 토론했다.

동남아연구소장 케스바파니(Kessavapany)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 중동 국가들이 내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종교에서도 강조했던 불교의 핵심사상 '자비, 평화, 비폭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순수 학문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며 정치나 종교색을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부디스트 서킷' 호화열차 도입

인도 관광청이 비하르 주(州)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열차 관광 상품 '부디스트 서킷'에 호화 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인도 언론 '더 타임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가 2월 6일자 기사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광청 칸터 싱 장관은 "고급 열차를 도입해 내국인들이 불교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인도 열차관광 상품인 '바퀴달린 궁전'은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국내 여행객들도 불교성지 순례 동안 고급열차를 이용하도록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청 산하인 코타리 비서관은 "이번 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2008년 증가한 외국인 관광 입국비를 만큼 국내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물바이 테러 사건 발생 후 일어난 이후 내국인 관광 증가 추세는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너는 기자

불치사리 5년만에 공개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 치아 사리가 5년 만에 공개된다.

주 스리랑카 대사관에 따르면 스리랑카 캔디(Kandy)시에 위치한 불치사(佛齒寺, 달라다말리가와 사원, daladmaligawa) 주지는 "불치사의 성물인 부처님 치아를 3월 6~16일 매일 오후 1시~5시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의 송곳니를 소장하고 있는 불치사는 치아 사리를 5년 만에 공개하는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인도의 카링가 왕녀가 상하라 왕자로 시집을 때 부왕이 딸의 행복을 기원하며 딸의 머리카락에 부처의 치아를 남모르게 숨겨서 보냈다. 스리랑카로 건너온 치아는 상하라 왕조와 함께 각지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캔디의 절에 봉안됐다. 이렇게 해서 불치사(佛齒寺)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모셔진 부처님의 치아는 보석이 가득 박힌 일곱 겹의 상자에 보관돼 있으며, 불치 축제 때만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너는 기자

“국내 최초 실버문화벨트 구축”

“중로를 중심으로 실버문화벨트를 형성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사진)는 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로 실버문화벨트 사업' 등 2009년 주요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문 소장은 "노인문화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복지 강화와 고령자기업 설립 등 노년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내 최초의 중로 실버문화벨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장은 △창업지원 강화 및 고령자기업 설립 △요보호 어르신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핵심사업으로 소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실버문화벨

서울노인복지센터 새해계획 발표

트 조성은 서울시의 노인육구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했다.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28.4%)가 건강활동(38.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어르신 232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를 통해 종묘·탑골 공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렴한 비용의 공연장(69.5%)과 무도장(33.5%), 전시장(24.0%) 등 노인문화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활기·활발·활력'의 새로운 노인문화 구축'을



표로 △예술 공연(실버영화관, 노인영화제 개최) △노인 문화 지원(중로 실버라디오 방송국 개설, 시니어 북카페 운영, 동아리 활동) △일·봉사·세대통합(노인용품 전문점 운영) △교육 및 상담(어르신 상담센터 개설, 실버인문학 강좌 운영) 등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과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취업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취업알선과 훈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버카페(맛집)와 아트샵 및 노인용품점 등을 취급하는 고령자 기업을 직접 설립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일문 소장은 "일본에는 노인전용 거리, 미국에는 시니어타운이 있듯 국내에도 어르신을 위한 최초의 실버타운이 형성된다"며 "이번 실버타운 형성 프로젝트가 노인문화공간 확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 전국적으로 노인문화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로터스월드·김안과 자비의술 펼쳐

캄보디아 BWC 어린이도서관도 완공

1달러로 4인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나라. 문맹률이 60%에 달하며, 수많은 아이들이 AIDS, 백내장 등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의료 불모지 캄보디아에 자비의 슈바이처들이 광명을 선사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과 서울 김안과 병원은 2월 7~14일 로터스월드가 설립한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씨엠피 빈민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성주 병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김안과·고려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명이 참가한 이번 의료봉사에서 의료진들은 2000여 환자를 진료하고, 백내장, 안구 종양 등 크고 작은 72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 빈민 구호 사업에 나섰으며, 2006년 양코르와트가 있는 씨엠피에 고아원 및 교육·의료시설이 있는 BWC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보다 활발한 의료봉사를 위해 BWC센터 내 진료소를 개설했으며, 이번 의료봉사를 진행한 김안과를 비롯 KT&G봉사단, 경희의료원봉사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김안과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의료혜택을 받은 캄보디아인은



텔런트 이윤지씨가 캄보디아 BWC센터에서 캄보디아 아이들 돕기를 호소했다.

무려 9000여 명, 무료수술은 25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 쉐레이 리어·13를 현지 병원을 임대해 집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소아백내장 환자 기 디나(여·9양을 서울 김안과 병원으로 후송해 2월 17일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현재 기 디나양은 회복 단계로 2월 27일경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현지 의료봉사와 수술 전 과정은 텔런트 이윤지씨가 동행해 2월 21일과 28일 'KBS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한편 2월 11일에는 KT&G복지재단이 후원한 캄보디아 BWC어린이도서관도 완공됐다. 도서관 준공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소님, KT&G복지재단 김재홍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인근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해 문맹퇴치의 출발을 축하했다. 어린이 도서관은 하루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터스월드는 "현지에는 출판시장이 열악해, 한국에서 영문서적 등을 기증받고 있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725-4277

노덕환 기자

장기기증 홍보 생명나눔실천본부

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관용)에는 평소의 10배가 넘는 8000여 명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다. 명동성당 앞에서만 하루 100여 명이 장기기증서를 제출했고, 텔런트 정찬용, 가수 장윤성·서인영, 개그맨 양원경 등 연예인 10여 명도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나섰다.

박관용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팀장은 "평소에는 일일 평균 10~15건의 장기기증 문의·접수를 받았으나, 김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전해진 후 30~45건으로 문의가 늘었다"며 "2008년 장기기증 서약은 1000여 건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기증 홍보를 강화해 1500여 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에 두 번 장기기증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4-8050

이너는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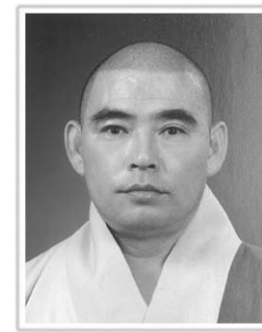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동방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ANGSA24.ORG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숙식가능)